

“자서전”의 쓰기와 읽기의 문제

고 영 일
한양대, 중남미문학

1. 문제의 제기

자은무명(自隱無名)적 사고가 의식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동양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자서전은 그리 익숙한 이야기 양식이 아니다. 그러나 서구에 있어 자서전은 비록 뒤늦게 탄생했지만 “나”에 대한 직접적인 글쓰기라는 점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서전은 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문학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하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주인공의 삶과 그가 살아온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문학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선이 약해지고 서사물의 현실 재현 기능이 글쓰기의 작업 자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 반성되는 시대를 경험하면서, 픽션과 차별되는 특질을 갖고 있다고 믿어 왔던 자서전을 둘러싼 논쟁들은 이제 자서전이 얼마만큼 저자의 과거 삶을 굴절 없이 드러내 줄 수 있는가, 자서전이 그려내고 있는 정황은 저자의 삶과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정보 기능을 갖고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양분된 견해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 비평가들은 자서전의 논픽션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자서전을 허구물과는 구분되는 문학 양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또다른 비평가들은 모든 글쓰기 작업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허구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픽션과 자서전의 구분을 무화시키고 있다.

스페인어권 문학 내에서 자서전은 지속적이고 뚜렷한 전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대 갈등 의식이 첨예했던 황금세기는 많은 자전적 문학 작품을 산출했으며 금세기에 들어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자서전은 즐겨 사용하는 문학 형식이 되었다.¹⁾ 그러나 자서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입장 차이가 뚜렷

1) Antonio Lara Pozuelo, “Nota previa”, en Antonio Lara Pozuela ed., *La*

한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1992년 쿠바 출신의 작가 레이날도 아레나스Reinaldo Arenas(1943-1990)가 유작으로 남긴 그의 자서전 『어둠이 다가오기 전에 *Antes que anochezca*』²⁾에 대한 여러 작가와 비평가의 글들은 얼마만큼 “독자”들이 자서전을 상반된 입장에서 읽고 있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레나스의 자서전은 작가의 삶을 규정지었던 작가, 동성 연애자, 체제의 반항아—그의 인생을 조건지었던 바티스타 정권, 카스트로 정권,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 모두에 대한—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어린 시절, 청년기, 그리고 쿠바 탈출 이후부터 생을 마감하는 미국 시절에 이르는 전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성 편력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가로서 쿠바 내에 “유폐”된 생활을 경험하면서 보고 느낀 카스트로 정권과 문학인을 포함한 쿠바 지식인 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유머를 곁들인 독설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아레나스의 글이 출간되었을 때 그의 자서전에 쏟아진 호평과 혹평은 엄밀히 말해 자서전이 개인의 삶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그려내야 한다는 입장과 자서전을 소설과 차이 없는 픽션의 한 갈래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대립적 입장을 우리는 쿠바 출신의 두 작가의 언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소설가 마누엘 페레이라Manuel Pereira는 아레나스의 자서전이 작가 자신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심으로 쓰여져서 당대 쿠바 지식인 사회의 모습을 왜곡하면서 자서전을 픽션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³⁾ 카브레라 인판테Guillermo Cabrera Infante는 이 자서전을 탁월한 “악자 소설*novela picaresca*”의 한 작품⁴⁾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에서 본 아레나스의 자서전에 대한 두 입장은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 삶을 자신이 직접 쓰는 자서전이라는 글쓰기 형식이 픽션의 글쓰기와 구분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이 물음에 대한 비평가들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 자서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한 비평가의 분류에 의하면, 자서전의 해석 문제에 대한 비평가들의 대립적 양상은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갈래는 자서전이 소설이 사용하는 양식과 기법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자서전을 픽션과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비평가들이다. 이 입장을

autobiografía en lengua española en el siglo XX(Lausanne: Sociedad Suiza de Estudios Hispánicos, 1991), p. 9.

2) Reinaldo Arenas, *Antes que anochezca*(Barcelona: Tusquets Editores, 1992)

3) Manuel Pereira, “Reinaldo antes del alba”, en *Quimera*(N. 111, 1992) pp. 57-58.

4) Guillermo Cabrera Infante, *Mea Cuba*(Barcelona: Plaza & Janes, 1992), p. 404.

견지하는 대표적인 비평가들로는 게오르그 구스도르프Georges Gusdorf, 스타로빈 스키Jean Starobinski, 필립 레젠느Philippe Lejeune, 엘리자베드 부르스Elizabeth Bruss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자서전을 다른 문학 장르와 변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담화 체계로 인식하면서 개인적, 역사적 증언으로서 자서전이 갖는 다큐멘터리 기능을 중시한다. 반면 데리다Jacques Derrida, 폴 드만Paul de Man, 바르트Barthes, 마이클 스프링커Michael Sprinker 등으로 대표되는 비평가들은 자서전이 픽션과 구분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나”에 대한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픽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⁵⁾ 두 가지 비평적 관점이 맞부딪히고 있는 핵심은 과연 자서전이 픽션과 구분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비평가들이 자서전을 픽션과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을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거는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이점은 글쓰기라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 의식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점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의 자서전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자서전: 그 기원과 배경

서구에 있어서 자서전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 철학자 딜타이가 역사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한 방법으로 자서전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자서전은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단지 저명한 인사의 전기나 청년 시절의 이야기의 한 갈래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50년대 들면서 이론적인 발전의 시대를 맞는데,⁶⁾ 게오르그 구스도르프의 논문 “자서전의 조건과 한계”를 계기로 본격적인 이론 작업의 시대를 맞게 된다. 구스도르프는 자서전의 기원을 서구의 역사적, 정신적 단계 속에서 고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서구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José María Pozuelo Yvancos, *Poética de la ficción*(Marid: Editorial Síntesis, 1993), pp. 185-186.

6) James Olney, “Introduction” en James Olney ed., *Studies in Autobiograph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xiii-xiv.

자서전이란 장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된 장르이다. 즉,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던 장르가 아니다. 성 아우구스틴의 《고백록》을 그 첫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서구 전통에서 상당히 뒤늦게 나타난 현상이며 기독교적 전통과 고전주의 전통의 융합이 낳은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⁷⁾

구스도르프에 의하면 인간이 과거로 회귀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심은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인들이 가졌던 특수한 경우였고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신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그의 삶이 궁극적으로 신의 심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인간은 이 지상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고해성사라는 종교적 형식을 통해 신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자신의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종교적으로 자신이 져야 하지만, 그 판단은 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교리 속에서 서구인은 신 앞에 마주한 영혼에 대한 자각이 강했다. 신은 그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 앞에서 인간은 솔직하게, 그러나 동시에 자기 변호적인 태도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야 했다.⁸⁾ 성 아우구스틴의 《고백록》은 신 앞에 마주한 한 인간의 의식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그의 글이 상당한 수사학을 동반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의 자기변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⁹⁾

한편, 자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간은 세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자신이 살아 있음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세계를 불완전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여 세상에 남겨 놓으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인이 가졌던 이 자아 중심적 의식과 욕망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의식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영원히 회귀하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유입 이전의 서구나 그 밖의 다른 문명, 예를 들어 윤회 사상에 그 축을 두고 있는 인도 문명이나 불

7) Georges Gusdorf, "Condiciones y límites de la autobiografía" en Angel G. Loureiro ed., *Suplementos Anthropos: La autobiografía y sus problemas teóricos*(Barcelona: Editorial Anthropos, 1991), p. 9.

8) María Zambrano, *La confesión: género literario*(Madrid: Mondadori España, 1988), pp. 18-23.

9) Georges Gusdorf, *op. cit.*, p. 11.

교 문명 등에서는 서구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자서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였고 따라서 그것을 생산해 내지 않았다.¹⁰⁾ 직선적 시간관은 과거는 현재와 다르고 현재는 미래에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의식으로 그것은 시간의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균일하지 않은 시간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마모되고 파편화되는 과거의 자신과 그를 둘러싼 상황을 붙잡으려는 시도의 한 방법으로 자서전이라는 글쓰기를 생산해 냈다.

자서전의 등장은 정신사적인 면에서 혁명을 가져왔다. 이제 예술가는 대상인 모델과 일치하게 되었고 역사가는 자기자신을 객체로 취급하게 되었다.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의 삶과 시대를 묘사했던 전기가 갖는 외적 바라봄과는 달리 자서전은 자신을 객체화하여 내면적 투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성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였던 것이다.¹¹⁾

인간이 자신을 객체화하여 보게 되는 현상을 일반화시켜 준 결정적 계기는 중세 말기 베네치아에서의 거울의 발견이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든 거울의 발견으로 인간은 자기앞에 마주한 또 다른 자아를 경험했다.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는 인간의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즉 의식 발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²⁾ 많은 화가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자화상에 매력을 갖게 되었고, 렘브란트나 반 고흐의 경우처럼 집요하게 자화상에 관심을 갖는 화가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생애 62장의 자화상의 남겼던 렘브란트의 작업은 그가 얼마나 자화상에 집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렘브란트의 수많은 자화상들은 끊임없이 타자로 존재하는 자아를 장악하려는 그의 시도가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의 반복적 행위는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폭으로 옮기는 순간 그가 담아 내고자 하는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자화상이 하나의 그림 속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자서전은 언어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서전은 자화상과 달리 객체로서의 자아를 주체와 일치되게 완전한 모습으로 그려낼 수

10) 기독교가 서구인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의식구조의 변화중 하나는 시간관이었다. 서구 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관은 “영원 회귀”의 시간관이었으나 기독교의 유입으로 이제 서구인들은 직선적 시간관을 갖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Octavio Paz, *Los hijos del limo*(Madrid: Seix Barral, 1974), pp. 17-62 참조.

11) Georges Gusdorf, *op. cit.*, pp. 10-11.

12) Jacques Lacan, *Escritos*, I(México: Siglo XXI, 1971), pp. 11-18.

있는가?

이제 자서전을 픽션과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가들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대립적인 두 가지 입장이 상이한 준거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먼저 자서전은 픽션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가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자서전의 계약

자서전을 픽션과 구별되는 글쓰기 양식으로 파악하는 비평가들에게 자서전에 대한 정의 시도는 필연적인 작업이다. 그중 비평가 필립 레젠느는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자서전을 정의하고 있다. 1975년에 출간된 비평서 『자서전의 계약 *Le pacte autobiographique*』¹³⁾에서 그는 자서전의 고찰을 위한 몇 가지의 관점들을 제시한다. 그는 자서전을 사적(史的), 심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자서전을 문학 텍스트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서전은 문학으로 기능하는 텍스트, 문학으로 읽히는 텍스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서전 연구는 문학 장르 내에서 자서전과 구별되는 장르와 자서전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과 자서전이라는 장르 내에서 개별 텍스트의 이해와 분석을 시도한다.

그는 우선 자서전과 유사한 장르, 즉 전기와 자서전, 그리고 소설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부터 출발한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자서전은 “실존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자신의 삶을 개인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산문으로 쓴 회고적 이야기”¹⁴⁾이다. 자서전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네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필립 레젠느는 네 가지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⁵⁾

1. 언어의 형식:
 - a) 서사.
 - b) 산문.
2. 다루어지는 내용: 개인적 삶, 개인사.

13) 이 책은 1972년부터 1974년에 쓰여진 글들을 묶은 것이다.

14) Philippe Lejeune, “El pacto autobiográfico” en *Suplementos: La autobiografía y sus problemas*, op. cit., p. 48.

15) *Ibid.*, p. 48.

3. 저자의 위상: 저자(이름, 실제 인물)와 화자의 일치.
4. 화자의 입장:
 - a) 화자와 인물간의 일치.
 - b) 회고적 시각에 의한 서사.

필립 레젠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서전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자서전과 인접한 다른 글쓰기 양식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회고록은 자서전 정의 중 2항을 벗어난다. 한 비평가의 지적처럼 회고록은 개인사의 문제에 서술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글쓰기 형식이다.¹⁶⁾ 부연하면, 회고록은 개인의 사적 생활보다는 공적인 측면을 서술한다. 그리고 전기는 그 대상이 되는 인물과 그를 서술하는 화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4a항 조건을 벗어난다. 사소설의 경우는 화자와 실제 인물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3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드러내 주는 일기는 현재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4b항의 회고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화상이나 수필은 언어의 형식(1항)과 회고적 시각에 의한 서사(4b항)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¹⁷⁾

위에서 살펴본 필립 레젠스의 자서전의 정의는 기초화적인 틀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구분하고 있는 네가지의 범주중 1항과 4항은 통사론적인 측면이고, 2항은 의미론적인 부분이며 3항은 실용적인 면이다.¹⁸⁾ 그런데 실용적인 측면, 즉 저자의 위상 문제는 레젠스의 자서전 정의중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이점은 레젠스가 자서전을 자서전적 픽션과 구분시키는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떠한 글쓰기가 “자서전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자와 화자와 인물이 일치해야 한다”¹⁹⁾라고 말하고 있다. 이른바 저자/화자/인물의 일치라는 레젠스의 자서전의 필요 조건에서 비평가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일치”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²⁰⁾ 그런데 레젠스는 저자와 화자, 그리고 인물이 일치되는 조건으로 저자의 서명이라는 서사 외적(텍스트 외적)인 사회 계약적 요소를 끌

16) J. Romera Castillo, ed. *La literatura como signo*(Madrid: Editorial Playor, 1981), p. 40.

17) Philippe Lejeune, *op. cit.*, p. 48.

18) Dario Villanueva, *El polen de ideas: Teoría, crítica, historia, y literatura comparada*(Barcelona:PPU, 1991), p. 101.

19) Philippe Lejeune, *op. cit.*, p. 48.

20) José María Pozuelo Yvancos, *op. cit.*, p. 189.

어들이고 있다. 자서전을 정의하면서 저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그의 전략은 미셸 푸코의 저자 개념에서 유래하고 있다. 언술과 권력이라는 구도하에서 저자를 바라보는 푸코는 그의 글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저자는 글을 쓰고, 출판하고,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저자는 사회적 기능으로 존재한다.²¹⁾ 레젠느는 푸코가 밝히고 있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저자 개념을 좇아 저자는 서명행위를 통해 자서전의 주인임을 밝히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을 믿고 읽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²²⁾ 즉 독자들은 비록 저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서명을 통해 그를 담화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담화의 내용, 그가 서술하는 삶의 내용도 신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젠느는 자서전이 사회 계약적 행위인 서명을 매개로 해서 저자와 화자, 인물이 일치되며, 저자/화자/인물은 서명, 즉 이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픽션과 구별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일치”는 독서의 계약, 혹은 조약의 산물이다.

저자의 서명으로 저자/화자/독자가 일치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자서전이 지니는 이 특수한 현상을 레젠느는 “자서전의 계약”이라고 칭한다. 자서전은 이 “계약”에 의해 법률적인 글이나 역사 서적, 그리고 과학 서적 등과 같이 진실 검증의 문제에 민감한 글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에 의하면 “자서전의 계약”은 자서전을 픽션과 구분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레젠느의 자서전의 정의는 저자와 독자간에 맺어지는 계약이라는, 텍스트와 텍스트외적인 것의 관계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자체의 내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그의 정의를 따르자면 자서전의 역사는 다양한 종류의 자서전에 의해 주어진 독서 계약의 역사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럴 경우 자서전 자체는 실종된다. 레젠느의 자서전 정의를 비판하고 있는 많은 비평가들은 바로 이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서전: 부재하는 주체의 재구성

필립 레젠느가 저자의 서명을 끌어와 자서전에서 저자/화자/인물의 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면 자서전 연구의 다른 입장은 자서전을 “나”의 “재구성”

21) Michel Foucault, “Qué es un autor”, en *Creación*(Madrid: 1993), pp. 42-68 참고.

22) *Ibid.*, p. 51.

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술 대상인 인물은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 반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고 있다. 이 문제는 주체와 텍스트(자서전)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는 주체를 드러내는가 하는 점에 대한 탐구를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레첸느의 자서전 정의가 텍스트 외적인 관점에 치중해 자서전의 서술 내용과 역사적 진실 사이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면, “주체의 재구성”이라는 시각에서 자서전을 접근하는 이론들은 자서전 자체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자서전은 한 비평가가 새삼 지적하고 있듯이 한 개인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쓰는 글쓰기 양식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사라지고 실재하지 않는 과거의 자신을 쓰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자기 변신을 요구하는 과정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낯설기를 동반한다.²³⁾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분리 속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자신을 현재화하는 자서전의 중심 동인은 무엇일까? 렘브란트의 무수한 자화상에 대해 언급했던 구스도르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서전이 갖고 있는 원죄는 논리와 합리성에 기초한 일관성이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삶이 자서전 서술의 주체가 되지 않고 현재)의 서술이 삶의 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자의 의식이 서술을 이끌고 나감으로써 의식이 삶을 지배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서술이 시작되면서 환상이 생겨나고 그 환상이 과거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역전된) 모습을 띄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의 의미 가정 논리하에서 선택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²⁴⁾

결국 현재의 서술논리에 의거하여 과거를 그림으로써 “나”의 과거 모습은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생”되기보다는 “재구성”되는 것이다. 자서전을 이끄는 중심 동인은 삶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서술의 논리인 것이다. 이점에 대해 심리적, 문학적 관점에서 자서전을 분석하고 있는 한 비평가는 자서전이 의도하는 가장 큰 목적중 하나는 “일관된 질서 지우기”이며, 이 논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서전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서전은 저자가(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객체가 되기를 원

23) Wallace Fallie, “On Writing Autobiography” en James Onley ed., *op. cit.*, p. 165.

24) Georges Gusdorf, *op. cit.*, p. 15.

하는 행위이다... 글쓰는 행위 없이 자서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글은 타인들에게는 객체로 변한다... 요약하면, 자서전을 통해 저자는 자기 질서를 세우게 되고 타인에게도 그 질서를 제시한다. 자서전은 작가의 의도된 환상이다.²⁵⁾

자서전이 “부재하는 나”를 “현재에 재구성”하고 있다는 인식은 현재의 나(저자), 말하고 있는 나(화자), 그리고 과거의 나(인물)가 공히 일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즉 주체의 단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를 서술하면서 현재의 나의 의식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자동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동 반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주체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자서전에서의 세 인물의 일치는 근대의 이성적 주체에 대한 믿음 속에서만 가능하다. 자서전이 개인사 속에서 “나”의 탐구에 대한 묘사라고 할 때, 그것은 주체의 주체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며 그 탐구 과정에서 저자/화자/인물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분열되지 않은 단일한 인식 주체를 상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근대 서양 철학은 인식 주체의 발견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그 인식 주체에 대한 믿음은 근대 서양인의 보편적 사고였다. 그러나 19세기말과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성과 주체에 대한 비판이 싹트면서 그러한 믿음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언어학과 정신 분석학을 접목해 근대적 개념의 인식 주체를 비판하고 있는 자크 라캉이 밝히고 있듯이 주체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 행사자가 아니며 타자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지각-인식 체계에 기초한 주체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으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 상상적, 허구적 산물로서의 자아가 존재할 따름이다.²⁶⁾

자서전에서 현재의 주체와 과거의 주체가 상호 독립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비평가들은 서구의 근대를 밀받침했던 단일한 주체 개념을 믿지 않는다. 레젠스가 말하는 것처럼 자서전이 독자적인 장르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논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비평가중 한 사람인 폴 드만은 그의 글 『마모로서의 자서전 *Autobiography as De-facement*』에서 자서전을 죽은 자의 묘비명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묘비명이란,

25) C. Castilla del Pino, “Autobiografía” en *Temas. Hombre, cultura, sociedad* (Barcelona: Ediciones Península, 1989), pp. 147-148.

26) Jacques Lacan, *op. cit.*, pp. 87-92.

의인화이며, 이미 죽어 목소리도 없는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돈호적인 허구의 수사학적 비유이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 죽은 자에게 말의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²⁷⁾

묘비명이 갖는 기능과 마찬가지로 자서전도 이미 부재하는 주체에 얼굴과 목소리를 부여하여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폴 드만은 부재하는 존재에 얼굴과 목소리를 부여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야말로 자서전의 픽션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가 실체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에 “나”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점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서전 속에서 “나”는 자서전의 출발점이 아니라 자서전에서 다루어진 삶의 결과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⁸⁾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서전은 그 서술을 시작함과 동시에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저자, 혹은 화자, 즉 현재의 “나”와 현재의 “나”가 그리고 있는 과거의 “나”, 자서전의 인물이 탄생한다. 이 두 개의 “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공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의 “나”가 또다른 “나”를 그리는 과정에서 두 주체는 상호 침투되는 작용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변형된 주체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결국 자서전은 그 서술 대상이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 자아라는 사실로 인하여 의도되건 의도되지 않건 끊임없이 서술 주체에 의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화자/인물이라는 세 가지 주체가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완전하게 자기 반영을 함으로써 일치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저자는 과거의 인물에 영향을 주고 있고 과거의 인물 또한 현재의 화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서전이 시도하는 주체의 주체에 대한 탐구, 정신의 자기 반영이라는 작업은 역설적으로 주체 반영의 끝없는 연기(延期)를 증명해 준다. 자서전에서의 주체, 나는 삶의 결과적 지시대상이 아니라 서술의 지시대상물이며, 픽션에 등장하는 인물과 변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자서전에서의 주체 해체적 입장을 취하는 비평가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의 발화자로서의 주체를 해체하고 있다. 이들이 자서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언어가 객관적 사실을 담아 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는 그 구조 자체의 속성으로 주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27) Paul de Man, “La autobiografía como desfiguración” en *Suplementos: La autobiografía y sus problemas teóricos*, op. cit., p. 116.

28) Nora Catelli, *El espacio autobiográfico*(Barcelona: Editorial Lumen, 1991), p. 18.

5. 자서전: 언어의 공간

자서전을 픽션과 다른 글쓰기로 인식하는 태도는 자서전에서는 픽션과 달리 과거의 나와 세계가 반영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관념적 사고로는 반영 체계로서의 글쓰기는 삶과 아날로지적 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삶은 자서전의 틀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글을 통해 삶이 반영된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결과가 자서전의 글쓰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의 글쓰기의 논리가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자서전에서의 한 개인의 인생 모습은 자서전 글쓰기 논리의 결과물인 것이다. 실제의 삶과 표현된 삶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 이점을 서구의 철학은 오랫동안 간과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서전이 픽션과 다르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의미화의 체계로서의 언어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신화는 필연적으로 언어가 진리를 체계화하고 본질을 재현해 낸다는 “형이상학”적 신화에 기초하고 있다.²⁹⁾

이미 부재하는 자아를 재구성하고 있는 자서전에서는 끝없는 비유로서의 자아만이 존재할 뿐이다. 언어로 존재하는 자아는 언어가 가진 속성상 데리다의 문자학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시간과 공간의 연기라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차연으로서 존재하는 글쓰기라는 내재적 조건으로 인해 언어로서 존재하는 자서전의 자아와 세계는 픽션의 세계와 분명한 경계선을 긋지 못하고 불확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자서전과 픽션의 불확정적인 관계의 인식은 단순히 비평가들의 범주를 넘어서 자서전을 쓰는 작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자서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자서전의 픽션적인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80년대에 자서전을 쓴 나탈리 사르트와 로보 그리에³¹⁾는 그들의 자서전이 이전에 쓰여졌던 픽션들의 연장으로 읽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²⁾ 시간과 공간의 차이 속에서 주체를 드러내는 자서전은 이제

29) Paul John Eakin, “Autoinvención en la autobiografía: el momento del lenguaje” en *Suplementos*, op. cit., p. 84.

30) P. Peñalver, *La deconstrucción: escritura y filosofía*(Baecelona: Montesinos, 1990), p. 130.

31) Nathalie Sarraute, *Childhood*(1983), Alain Robbe Grillet, *Le Miroir qui revient* (1984).

그것이 지시 대상과 맺는 관계를 떠나 언어의 감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³²⁾

6. 결론

자서전을 독립된 장르로 인식하려는 이론이나 픽션의 한 종류로 인식하려는 관점들은 모두 60년대의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의 작업적 성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자서전을 독립된 장르로 이해하는 레젠드로 대표되는 이론은 푸코의 저자 개념에 의거해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고 그 반대의 입장은 탈구조주의의 언어 이론과 텍스트성에 기초하고 있다. 레젠드적인 입장은 텍스트내에서 저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저자가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서전이 갖고 있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주체가 위기를 맞고 있고 진리와 담화간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의 시장 원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 기능은 목과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독자는 저자의 서명을 통해 하나의 담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다.

반면 독서의 계약을 통해 자서전을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항하는 이론들은 주체의 개념, 언어와 진실의 문제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인식론적 바탕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19세기이래 철학과 문학은 경험을 허구화해 글쓰기로 드러내는 문제에 있어 일치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³⁾ 그런 점에서 오늘날 픽션과 진실, 글쓰기와 존재 사이의 경계선을 없애려는 논의들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 비평가가 관찰하고 있듯이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 장르내의 다양한 담론들의 한계는 물론, 문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를 헐어 버리거나 최소한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동시에 글쓰기와 사회적 실천, 또다른 인간 경험의 영역 사이의 구분을 무효화하려 한다.³⁴⁾

32) Ann Jefferson, “Autobiography as intertext: Barthes, Sarraute, Robbe-Grillet” en Michael Wornton, Judith Still ed., *Intertextuality: theories and practic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 p. 110.

33) Paul John Eakin, *op. cit.*, p. 81.

34) José María Yvancos, *op. cit.*, p. 205.

35) A. Campillo, “El autor, la ficción, la verdad” en *Daimon*(Num. 5, 1992), p. 41.

자서전을 허구화하고 텍스트성이라는 문제로 자서전의 픽션성을 밝히는 탈구조주의로 대표되는 이론들은 문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론이 언어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 우선의 주목을 하고 있다. 모든 담론을 언어의 문제로 귀결시킬 때, 언어가 갖는 의미에 의해 담론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다. 비유성을 언어의 특질로 인식하는 이 이론에서 모든 종류의 담론은 글쓰기로 환원된다. 따라서 자서전과 허구물의 구분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관점은 푸코의 저자 기능이 갖는 텍스트 외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담론을 텍스트성, 언어의 구성, 텍스트의 비유성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자서전을 사회적 기능, 혹은 관계와 단절시키고 다른 담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담론과의 유사성이 강조될 때 자서전은 간텍스트성의 관점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간다.³⁶⁾

필자는 자서전을 둘러싼 두 가지 상이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자서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결국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르트의 독자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날 모든 담론의 종국적인 귀결점이 독자라는 사실은 역으로 자서전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36) José María Pozuelo Yvancos, *op. cit.*, p. 207.

Ann Jefferson은 그의 글 “간텍스트로서의 자서전”에서 바르트와 사로트, 그리고 로보 그리예의 자서전들을 그들의 허구적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즉 한 작가의 자서전과 픽션의 간텍스트성을 <자매 텍스트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Ann Jefferson, *op. cit.*, pp. 110-111.

ESCRIPURA Y LECTURA DE LA AUTOBIOGRAFIA

Este trabajo trata de las relaciones que mantiene la ficción con el género autobiográfico. Son relaciones difíciles como lo son todas las fronteras, puesto que la autobiografía ha sido defendida —de ahí su lugar de frontera— como género no ficcional por algunos autores, en tanto que para otros es uno de los lugares en que se decide la necesaria e intrínseca ficcionalización de toda escritura narrativa.

El estudio sobre la autobiografía como problema se enfrenta dos corrientes críticas, dos interpretaciones: a) Quienes piensan que toda narración de un «yo» es una forma de ficcionalización, inherente al estatuto retórico de la identidad y en concomitancia con una interpretación del sujeto como esfera del discurso. Una línea que arranca de Nietzsche, que reúne a Derrida, Paul de Man, R. Barthes y lo que se conoce en general como deconstrucción plantea el intrínseco carácter ficcional del género autobiográfico. Lo que la deconstrucción hace es invertir la proposición haciendo que también toda autobiografía sea una literaturización —por el procedimiento de la ficcionalización— de tal práctica. b) Quienes como Gusdorf, Starobinski, Lejeune, E. Bruss, aun admitiendo que algunas formas autobiográficas utilizan procedimientos comunes a la novela, se resisten a considerar toda autobiografía como una ficción. Ellos piensan que la autobiografía se propone como discurso que afirma una especificidad de alguna naturaleza: histórica, pragmática o en el horizonte de las convenciones genéricas, toda vez que las autobiografías no son novelas, ni la mayor parte de ellas entran siquiera en la categoría de obras literarias.

La teoría de Lejeune que pretende a definir la autobiografía está basada en el aspecto práctico de la autobiografía, remitiendo a la firma de autor. En este sentido su definición es de lo extratextual de la autobiografía. Por otra parte, otra dirección del estudio de la autobiografía parte de la problemática de la identidad como «construcción» del «yo». Este estudio demuestra que el sujeto en la autobiografía siempre se desplaza y se huye, por lo tanto no puede captarse.